

가정예배 · 구역예배

7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요한계시록

호세아 · 요엘 · 아모스 · 오바다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7

201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요한계시록

호세아 · 요엘 · 아모스 · 오바다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7

2010

July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요한계시록 15장	5 요한계시록 16장	6 요한계시록 17장	7 요한계시록 18장
11 요한계시록 22장	12 호세아 8장	13 호세아 9장	14 호세아 10장
18 호세아 14장	19 요엘 1장	20 요엘 2장	21 요엘 3장
25 아모스 4장	26 아모스 5장	27 아모스 6장	28 아모스 7장

August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1 요한계시록 12장

금요일

2 요한계시록 13장

토요일

3 요한계시록 14장

교회 주요일정

7월 4일

맥추감사주일
제5차 성찬식

8 요한계시록 19장

9 요한계시록 20장

10 요한계시록 21장

나의 주요일정

15 호세아 11장

16 호세아 12장

17 호세아 13장

22 아모스 1장

23 아모스 2장

24 아모스 3장

29 아모스 8장

30 아모스 9장

31 오바다 1장

- 1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2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시설,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 10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 믿음 그리고 믿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약속하십니다.

진퇴양난이라고 느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대답이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2010년 7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어떤 전쟁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고 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무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변치 않는 충성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끝내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싸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삼켜져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영적 전쟁에 임함에 있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날까지 우리의 방패되시는 주님의 군사로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람들 중에는 인내의 부족으로 인해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급하여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인내를 다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실패와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자기 부인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출발을 잘하고 제반 여건들이 충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히 10:36).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죄와 싸울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재림을 기다릴 때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말며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13). 우리는 죄와 싸울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도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순종하며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यो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10)

기도제목

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어린 양과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 찬송가 82장

십사만 사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구속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시온 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유혹)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 그들은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즉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시온 산에 서게 될 자들은 바로 믿음의 순결한 자들이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진실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이 거룩하고 영원한 시온 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계 14:4)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에 이어지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계시의 서론 부분으로 사탄의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한 성도들(2절)이 하나님의 거문고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도 표현한 이유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과 출애굽 때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찬양한 백성들의 모습(출 15장)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국의 왕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유일하게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문고를 타며 찬양한 노래입니다. 주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왕 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기도제목

① 주님의 능력과 거룩하심, 그리고 왕 되심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맥추감사주일과 제5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진노의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 찬송가 357장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가 쏟음으로 그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인 것으로 점차 커져가게 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 등 환경들이 크게 오염되어지며 재앙은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겔돈에서 일어날 영적 전쟁입니다(16절). 유브라데는 당시 로마와 동방나라의 정신적 경계선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막고 억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억제하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세 영을 통해서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그 세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13절). 용은 마귀로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조종자입니다. 짐승은 앞에 나서서 설치는 세력이며,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아첨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15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계 16:1)

기도제목

①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로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1절).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2절).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로마의 막강한 힘을 입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음녀의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음녀의 분명한 정체와 위험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황량한 광야에 나아가 서 있으면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3절). 그리고 음녀의 몸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4절).

음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음녀는 세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비밀, 큰 바벨론,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라는 것입니다(5절). 비밀이라 함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사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함은 인본주의 왕국의 대명사로 인간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즉 교만과 자존심이 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비도덕적인 우상숭배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뿐입니다(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 17:14)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천천히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바벨론의 멸망을 외쳤습니다(1절). 바벨론은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2절).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가득한 당시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세력에 힘입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망하게 될 때 그들 모두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비록 몸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로마에 속해있지 않은 자는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죄에 참여하지 않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자들입니다(4절).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행 28:22).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미움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계 18:20)

기도제목

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요한계시록 19장 · 찬송가 235장

8

목요일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2절).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땅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절). 이십사 장로들은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이며, 보좌 앞에 앉은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입니다(4절). 그리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음성의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6절). 죄로 인해 불완전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해졌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7절). 영광의 주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이 순간은 혼인 잔치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의 잔치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풍성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9절).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16절). 자기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주가 되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11절).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 합니다(20절). 그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자들뿐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계 19:9)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구원이 모두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모든 산 자와 죽은 자들이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크고 흰 보좌입니다(11절). 이것은 최종적이며 대단한 권세가 있는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잣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판단하실 것입니다(롬 2:6~8). 이 순간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기 원하셨습니다(마 10:28).

본문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12절).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고 합니다(15절). 이 의미는 그가 행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바 되지 않고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 두었던 죄들이 다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죄로 인해 심판 받아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충청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 납골시설 ·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1절). 이곳에서는 이전에 세상에서 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모든 자들의 거한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성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2절). 사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이전의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총체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 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입으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고 합니다(2절). 이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벧전 3:3~4).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4~5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6절). 그분은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6절).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요 19:30). 그 은총으로 성도는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기도제목

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 찬송가 176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모습이든 비유적인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죄의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3절). 그곳에는 처음 에덴동산을 통해 보여주셨던 생명수의 강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1절). 그 주변에는 생명 나무가 열두 가지 열매를 맺고 만민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귀들은 그 푸름을 더할 것입니다(2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속히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되어질 일임을 보이실 것입니다(6절). 주님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7절과 12절에서 반복하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시며(7절) 주님은 이어 경고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약속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생명 나무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19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죄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9절). 들에 사는 들나귀는 욕정이 강한 짐승입니다. 홀로 처했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대로 고집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정에 따라 이방 신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목자로 삼는 자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시 23:1~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이방 종교와 혼합하여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앗수르를 의지하여 앗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배반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앗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9절)고 표현하셨습니다. 음란한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호 8:9)

기도제목

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간음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스라엘을 향하여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고 말씀하십니다(7절).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징벌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비웃고 핍박함으로써 주님의 경고를 거부하였습니다(사 10:3).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 진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렘 23:16). 이들은 거짓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외쳤습니다(렘 6:14).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벧 후 3:10).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호 9:9)

기도제목

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궁핍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12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가중한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멸망당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의를 입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눅 5:32). 이 회개의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이 강퍅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사 55:6). 지금은 구원의 날이며 은혜 받을 날입니다. 이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날에, 은혜 받을 날에 원하시는 삶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삶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호 10:12)

기도제목

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1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좇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2절).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쫓아간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더욱 우상을 좇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보다 죄가 주는 쾌락 가운데 살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8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지만, 징벌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하십니다. 바로 그 긍휼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호 11:1)

기도제목

① 그 크신 주의 사랑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 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국제 정세에 따라 강한 세력을 좇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앗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한편으로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정치적인 안전을 얻고자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불성실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징벌이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애 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회개하는 심령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호 12:6)

기도제목

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6절).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여유가 생기자 그들은 과거를 잊고 새롭게 맛보게 된 세상적이고 부패한 풍습과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나운 짐승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그 심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선포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14절). 심판으로 사망과 음부가 그들의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몰락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써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셨듯이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호 13:4)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교만에서 떠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인 이 장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1절) 하는 부르심입니다.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으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함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하는 것도 아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며 회개함으로 아뢰는 것을 말씀합니다(2~3절). 이러한 낮아진 마음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3절)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할 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4절)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습니다(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 놓으신 그 길로 다니게 되는 의인에게 임하는 은총을 약속하십니다(5~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의인이 되지만, 죄인은 오히려 십자가의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9절). 의인에게 십자가는 은총이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가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 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호 14:9)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거치는 돌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 실 착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 게로부터 이르리로다”(15절). 여호와와 날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써 악한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재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에게는 최후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와 날과 관련하여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두려운 결과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16~18절에 보면 재앙의 실상은 이미 그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벌의 참담한 결과를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다시 임하게 될 더 큰 심판의 참상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거룩한 금식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14절). 이제 닥쳐올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하고’라는 말은 ‘성별하다’는 뜻이기에 ‘금식을 거룩케 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금식을 하긴 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진정한 금식과 회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욥 1:14)

기도제목

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변하게 한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여호와와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여호와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11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23절). 마음을 찢는 자는 진정한 회개를 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23절).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28절).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32절). 여호와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요 2:28~32; 행 2:16~21)의 새 영이 초대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허락하신 여호와와의 은총에 기뻐하고, 곧 이르게 될 여호와와 날을 예비하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요 2:18)

기도제목

① 다른 것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까움이로다”(14절). ‘심판의 골짜기’란 말은 매우 암울한 시대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차 판결의 골짜기로 이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판단을 했던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성산인 시온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에 거하시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심판을 피할 피난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씻은 자들만 들어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 곳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20절)” 언약하신 곳입니다. “그 날에(18절)” 여호와와 성산 시온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욥 3:16)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와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이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물질적인 풍요가 극에 달하였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0여 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면서 영토를 솔로몬 시대의 판도와 같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시켰으며, 팔레스타인의 주변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 속에 북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 북 이스라엘은 영적,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하였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막대한 채 율법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으며, 이웃에게 불의를 자행하는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는 2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 그리고 에돔과 암몬과 같은 열방에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3~15절). 아모스 1장을 통해 북 이스라엘과 여러 열방의 심판을 차례대로 묘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총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암 1:2)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sal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

아모스 2장 · 찬송가 255장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점점 그 범위를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죄악이 언급되고 본격적으로 북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것입니다(4절).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를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6~8절), 선민의식으로 매우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12절).

1~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13~16절의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2차적으로는 모든 열방에 대하여, 확대하면 죄를 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13절). 넘치는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은 죄악이 많이 있지만 회개조차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의 죄를 바라보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의 입술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은총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암 2:5)

기도제목

① 회개의 입술을 허락하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2절)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출 19:5)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 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2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모든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1~2절)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히 12:6~8).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사명이 안타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7~8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13절)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징계로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만을 아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깊이 몸부림하며 물어보았습니까? 여호와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라 명령합니다.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한 선지자들의 안타까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암 3:13)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여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모스는 이스라엘 부유층들의 사치와 방종한 생활을 바산 양소에 비유할 만큼 사회 정의에 민감했으며,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아모스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일곱 가지 큰 재앙으로 징계하셨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다섯 번씩이나 탄식하십니다(6~11절). 거듭되는 탄식의 말 끝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고 강조한 것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은 끝내 무시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짖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과 재물과 쾌락에 마음을 다 빼앗긴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의 우상들을 떠나 참된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12절) 초청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입술에 허락하신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13절)이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 4:12)

기도제목

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 찬송가 280장

26
월요일

“살리라”(4,6,14절)는 구원입니다. 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 선지자의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편으로 아모스는 “이스라엘 족속아... 이 말을 들으라”(1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4,6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14절),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24절)는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며 공화를 베푸시는(14~15절)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죽음에 직면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자비와 공화에 힘입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쁜 심판의 날입니다(20절). 심판의 날이 이르면 번제나 소제 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25절)”는 질문은 광야 40년 동안의 형식적인 제사를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입니다.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는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선포되지만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감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물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뽕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암 5:6)

기도제목

① 죄를 자복하게 하시어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과 사치에 빠져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1~6절).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는 “시온”과 “사마리아”에 “화 있을진저”(1절)라고 외칩니다. “시온”과 “사마리아”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만큼 무디어져 있었으므로 회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장차 포로가 되어 학대를 면치 못할 것(7절)이며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텐데도 여전히 교만하여서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 원수에게 넘기리라”(8절)고 하심에도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고 자신합니다(13절).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 선교를 가는 일 등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영광 때문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됩니다. 물질과 부귀와 권세와 명예만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의를 드러내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영적 교만과 마음이 든든한 자의 모습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그 무엇도 남지 않기 원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암 6:13)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라 하십니다. 이에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1절)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을 보도록 하셨다는 강한 사역을 언급합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의 세 가지 환상 모두 앗수르의 침략을 예고한 것으로 처음 두 환상은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모면되었으나 세 번째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앗수르의 세 번째 공격은 살만에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왕하 17:3~6).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선포했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르는 벨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해치기 위해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10절)하며 거짓 증언을 합니다.

아마샤는 “다시는 벨엘에서 예언하지 말라”(13절)고 위협하나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15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모스의 사명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조차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온 열방을 향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암 7:12)

기도제목

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말씀의 주체는 “주 여호와”입니다(1,2,3,7,9,11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12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며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매일 들어서 귀가 따갑다”고 불평하며 십자가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 십자가 말씀이 그리울 때가 올 것입니다. 곳곳마다 여호와와 말씀을 선포하지만 십자가의 말씀이 빠졌기에 우리는 주리고 갈하며 쓰러질 것입니다(13절). 영적인 눈으로 이 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십자가 말씀의 풍성한 잔치 속에 “식상하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갈의 때를 예비하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십자가 말씀에 목이 마를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를 가도,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십자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를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요!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을 맡기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말씀 앞에 전율을 느끼는 감격과 통곡의 눈물이 흐르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기도제목

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호흡하게 하소서. ② 총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 남굴시설 · 함양총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모스 9장 · 찬송가 608장

30

금요일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7절)의 말씀은 구스 족속의 검은 피부가 희게 되지 않는 것처럼 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8절)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로 체질할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9절)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7,8,12,13,15)를 반복하면서 언약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과 구스 족속 같은 우리도 그 알갱이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 날에”(11절)는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그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십니다. 이는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구속, 회복,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11절). “예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12절)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15절). 이 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이야기가 아닌 “여호와와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말씀의 어디를 펼쳐도 십자가가 보이며, 여호와와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말씀에 목말라 하고, 아모스의 결론과 같이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로 체질할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암 9:9)

기도제목

①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살며 십자가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집회(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돔의 멸망(1~18절)과 이스라엘의 회복(19~21절)을 말씀합니다.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에돔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특히 그의 형제국인 유다를 침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며,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데 근거합니다. 에돔은 천연적인 지형을 과시하며(3절), 많은 재화(6절)와 인간적 지혜(8절)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에돔의 자만심은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기뻐하며 재물을 빼앗는 것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0~14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에돔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에돔은 단순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며, 에돔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예언합니다(19~21절).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온 산이 피난처가 될 것이며 각 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씀 합니다. 21절은 오바다서의 종결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주님은 이를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듯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과 육의 아픔을 이미 감당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아팠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기 원합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욥 1:21)

기도제목

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이 아닌 주님께 나아감으로 치유 받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7월 구역교재 초점

민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필요한 가난한 영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르밧의 과부, 오병이 어를 가진 소년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렘 32:17).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현실의 문제로 돌리거나 사람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유혹할 때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7월 2일

고린도전서 11:23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은 은총의 자녀만 참여할 수 있다

7월 9일

열왕기상 17:8~16

사르밧의 과부 (The Woman at Zarephath)

사르밧의 과부처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7월 16일

요한복음 6:5~14

기적의 사역 (The Ministry of A Miracle)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7월 23일

출애굽기 5:1~2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Moses & Aaron Stand Before Pharaoh)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씀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0년 7월 2일

주의 만찬

| 초점 |

주의 만찬은 은총의 자녀만 참여할 수 있다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린도전서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신자들은 특정한 상징물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떡과 잔입니다.

※ 맥추감사주일에 거행하는 성찬식에 대한 기대를 나누어 보십시오.

떡은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을 상징하며, 잔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 중요한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의 만찬은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특별한 시간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는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유월절 식사를 대체하였다

주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를 대체했습니다.

※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고전 5:7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로 시작되어 주의 만찬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의 희생적인 죽음이 신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며 영생을 줍니다.

눅 22:15~16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행 2:42).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교회는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기념하지 못했습니다(고전 11:20).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신 풍성한 은총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겸손한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임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주의 만찬은 전 세계의 교회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칭해집니다.

※ 주의 만찬을 어떻게 칭하는지 찾아보십시오.

※ 주의 만찬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 3:20

신자들은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인지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식탁을 준비해두셨습니다.

시 23:5~6 /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_____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 하심과 ☐ 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간이 만든 예식이 아니다

주의 만찬은 인간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눅 22:19~20

고전 11:23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_____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의 만찬은 누군가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소원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주의 만찬을 전수받았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주의 만찬은 어떤 종교가들의 논의로 고안되었거나 신학적인 교리로 공식화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로부터 직접 내려진 것입니다.

고전 11:25~26

예수님은 자신이 배반당하던 날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주의 백성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전 11:17 _____

히 12:2 _____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대체하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는 은총의 자녀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믿음의 기도 |

1.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소서.
2. 십자가 은혜가 풍성한 제5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0년 7월 9일

2과

사르밧의 과부

| 초점 |

사르밧의 과부처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본문 | 열왕기상 17:8~16

⁸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⁹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 ¹⁵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¹⁶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삼 년 반의 가뭄 동안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이방 땅의 가난한 과부와 함께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인과 그녀의 외아들은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르밧 과부의 심경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신을 돌볼 신실한 여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삶을 함께 엮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이방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여인은 그녀의 하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왕상 17:9

눅 4:25~26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방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아합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왕상 17:10~11

※ 나와 주님과 친밀도는 어떠한가? 주님과 관계에 따라 믿음의 실천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었다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상 17:12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주목하는 대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게 만듭니다.

왕상 17:13

신 28:13~14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자신에게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과 두려움에서 돌아서십시오.

롬 5:10

롬 8:11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왕상 17:14~16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그녀의 믿음은 약해지는 듯했지만 이내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했지만 이내 믿음으로 굳건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참함에서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 말씀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가족에게 놀라운 은총을 안겨주었습니다.

히 5:9

※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입은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사르밧의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그녀를 두렵게 했을지라도 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했습니다.

창 22:2 _____

롬 12:1 _____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에 지쳐 힘겨워할 때에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참 쉼을 얻습니다. 앞뒤가 막혀 헤어날 길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 믿음의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2. 십자가를 붙들며 매순간 복음을 위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에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소서.

2010년 7월 16일

3과

기적의 사역

| 초점 |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 찬송 |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이 두려워 말아라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 본문 | 요한복음 6:5~14

⁵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⁶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 ⁷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⁸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주님의 능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열정은 자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때마다 무리로부터 물러가 계셨습니다.

요 6:2~3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 6:5). 이때 빌립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흥미로웠고 상황에 적절할 수도 있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옳은 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문제에 직면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아셨습니다(요 6:6). 예수님의 능력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항상 그분의 능력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매달려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으며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눅 1:37 _____

눅 18:27 _____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완벽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요 6:7).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요 6:9 _____

요 6:10~11 _____

하나님은 적은 것을 취하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외아들과 살고 있던 사르밧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드림으로 삼 년 반 동안 은총을 입었습니다. 작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던 기드온과 삼백 용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눅 17:6 _____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은혜를 받습니다.

요 6:12~13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겸손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어린 아이의 점심 식사로 족히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시 37:5

벧전 5:7

겸손하신 우리 구주는 그 보잘것없는 음식에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차례대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질서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필요한 가난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들이 우리의 길을 막아설 때 예수님께 달려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맡길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렘 32:17 _____

눅 5:5~6 _____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현실 문제로 돌리거나 인간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속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항상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 믿음의 기도 |

1.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2.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2010년 7월 23일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 초점 |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 본문 | 출애굽기 5:1~2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㉔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 5:1

※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예상되는 반응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그의 종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세상적인 권세는 모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구원 사역은 때때로 매우 낙심되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일상적인 일에 성실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일상적인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출 5:4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그 결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행 1:4,14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일상적인 일들에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 현재 내가 성실히 감당해야 할 일상이 무엇인지 살펴 본 후 나누어 보십시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려움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출 5:6~9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출 5:14).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요 15:19

※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조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출 5:21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짐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마 16:24 _____

출 5:22~23 _____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출 6:1~2 /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_____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
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출애굽기 3:10, 시편 27:14, 이사야 30:18, 40:31 말씀을 읽고 주님의 메시지를
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신실함을 잃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행 20:24

딤후 4:7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마땅히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하십시오.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2.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기적의사역

-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
-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 (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5-14)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주님의 능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요 6:2).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열정은 자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때마다 무리로부터 물러가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요 6:3). 주님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 6:5). 빌립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흥미로웠고 상황에 적절할 수도 있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옳은 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가워하던 하지 않든 죄악 된 세상에서 문제들은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군중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빌립에게 그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아셨습니다. “이렇

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요 6:6). 예수님의 능력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빌립은 곧바로 그 문제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항상 그분의 능력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문제에 근거해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7).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까? 다음번에 여러분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완벽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 하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요 6:9).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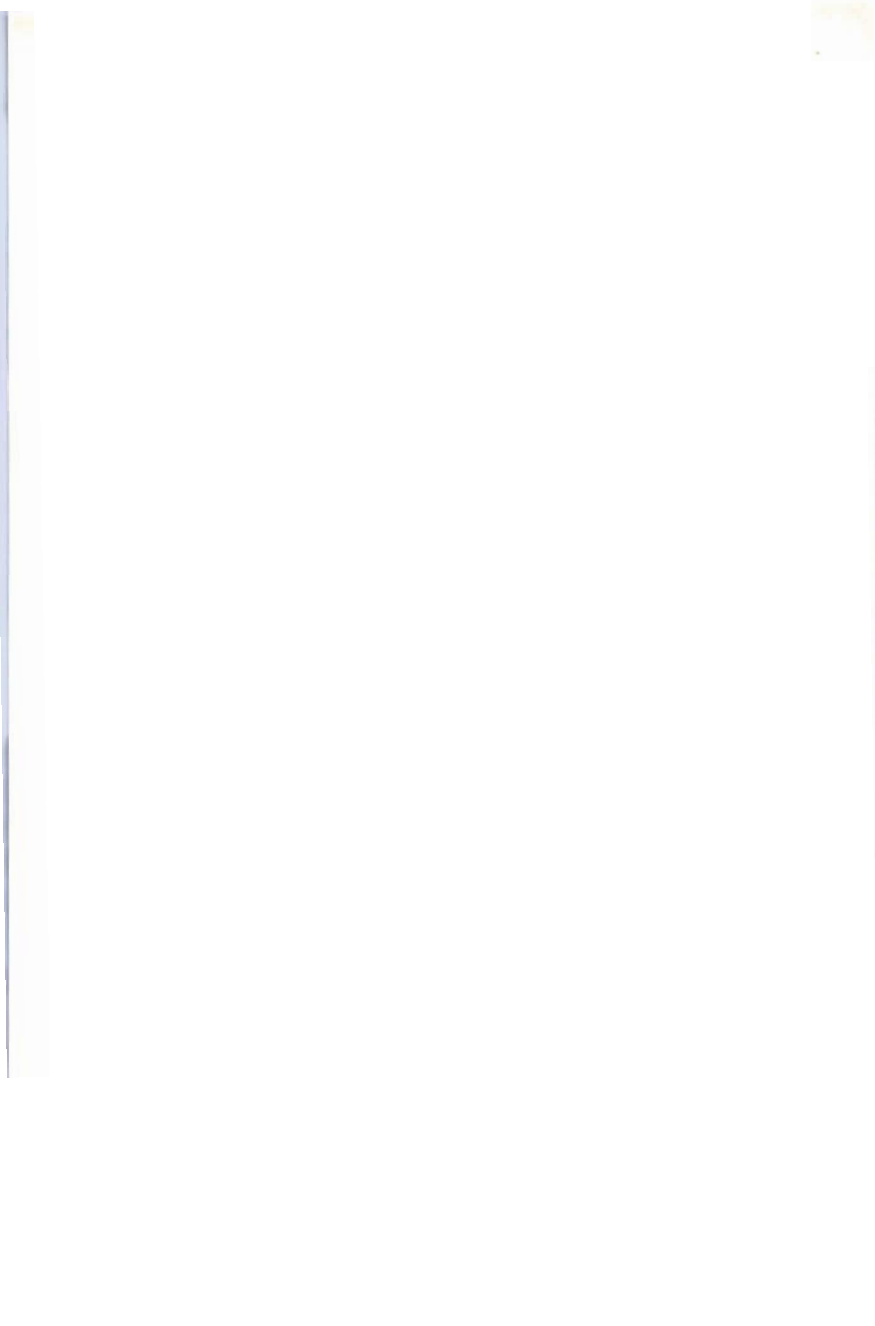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요 6:7). 빌립이 말한 이백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8개월 치 임금과 맞먹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말한 어린 소년의 점심 식사였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요 6:11~13). 하나님은 적은 것을 취하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외아들과 살고 있던 사르밧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드림으로 삼 년 반 동안 은총을 입었습니다. 작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던 기드온과 삼백 용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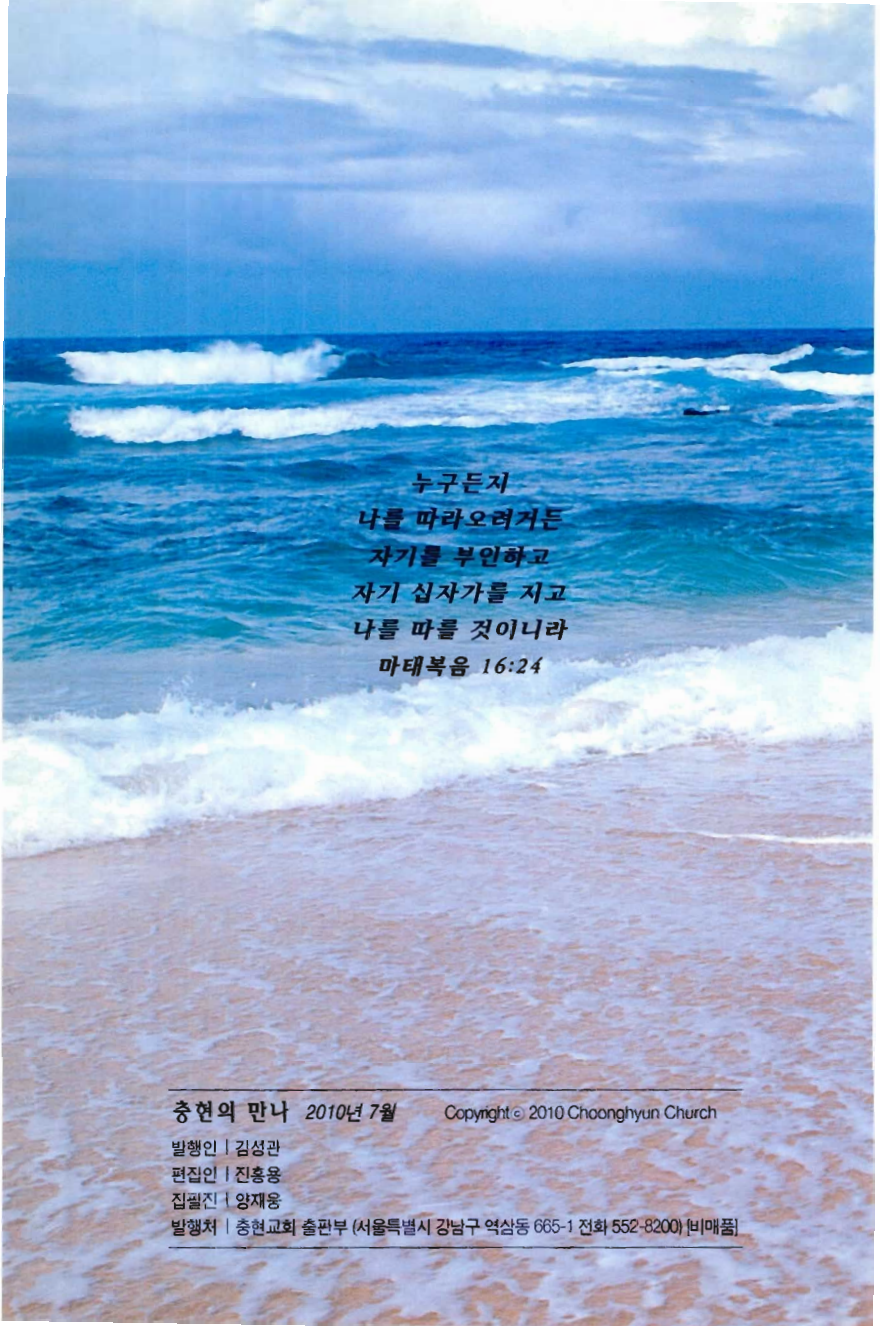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

우리에게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요 6:10).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요 6:10). 사람들은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겸손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어린 아이의 점심 식사로 족히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창한 이름과 제목을 내건 우리의 예배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겸손하신 우리 구주는 그 보잘것없는 음식에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차례대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질서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필요한 가난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들이 우리의 길을 막아설 때 예수님께 달려가 기도하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렘 32:17).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당면한 문제로 돌리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속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항상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7월

Copyright ©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